
은행 · 중소기업부문 주요 현안

[기자설명회 자료]

2023.11.30.(木)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연말 금융권 머니무브 동향 및 이슈사항	1
II. 중소기업 부문 건전성 현황 및 감독방향	4
III. 최근 가계대출 · 금리 동향 및 관리방향	9
IV. 최근 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15

1 연말 금융권 머니무브 동향 및 이슈사항

가. 현황

- '23.4분기 고금리 정기예금 및 퇴직연금 만기 집중 등에 따라 작년처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작년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음
 - 이에 은행 및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모두 조달 여건은 안정적인 상황

- **(은행권역)** ①'23.10월말 원화예수금은 2,055.2조원으로 전월말(2,064.4조원) 대비 △9.2조원 감소(0.45%↓)했으며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소폭 변동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구 분(단위: 조원, %)	'22.12말	'23.3말	'23.6말	'23.9말(A)	'23.10말(B)	증감(률)(B-A)
원화예수금	2,044.5	2,028.7	2,062.5	2,064.4	2,055.2	△9.2 (↓0.4)
요구불예금	922.7	913.1	925.9	899.6	878.8	△20.8 (↓2.3)
저축성예금	1,121.9	1,115.6	1,136.6	1,164.7	1,176.5	11.8 (↑1.0)

- ②예수금 등 조달금리는 시장금리 변동폭 이내에서 안정적*
 - * 조달금리는 시장금리 변동 영향으로 9월 이후 상승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하락하며 안정적인 상황
 - ① 은행채(1년)는 (11.1일) 4.15% → (11.24일) 4.04% 하락
 - ② 최근 정기예금(1년) 금리 인하 사례 : (OO예금) 4.05 → 3.95, (△△예금) 4.25 → 4.15

구 분(단위: %)	'22.11월	'22.12월	'23.3월	'23.6월	'23.9월	'23.10월	'23.11.24.
①국고채(1년)	3.84	3.71	3.45	3.51	3.61	3.74	3.71
②저축성수신(신규)	4.29	4.22	3.56	3.69	3.81	3.95	-
③은행채(1년)	5.00	4.51	3.72	3.86	3.99	4.11	4.04

* (저축성수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요구불예금 및 수식입출식 저축예금 제외, (은행채) AAA 등급

- ③은행채 발행 제한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수준에서 발행을 관리¹⁾해오고 있어 채권시장의 구축효과는 매우 제한적²⁾

1) 일반은행채 4분기 발행예정액은 21.7조원(10월 9.0조원 발행)으로 2·3분기보다 낮은 수준
[발행액(조원) : ('22.3Q) 30.0 → ('22.4Q) 5.3 → ('23.1Q) 12.1 → ('23.2Q) 25.5 → ('23.3Q) 24.9]

2) 여전채는 11월 이후 발행이 확대 [발행금액(조원) : (9월) 6.7 → (10월) 5.5 → (11.27.) 10.0]

- **(중소서민권역)** ①'23.10월말 총수신은 731.3조 원으로 예금만기 도래 등으로 전월말(735.6조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상호금융은 큰 변동이 없으나, 저축은행은 소폭 감소(△2.6조원, 2.2% ↓)

구 분(단위: 조원, %)	'22.12말	'23.3말	'23.6말	'23.9말(A)	'23.10말(B)	증감(률)(B-A)
중소서민권역	708.7	724.8	727.7	735.6	731.3	△4.3 (↓0.6)
저축은행	120.2	116.0	114.9	117.8	115.2	△2.6 (↓2.2)
상호금융	588.5	608.8	612.8	617.8	616.1	△1.7 (↓0.3)

[저축은행 수신 감소]

- 최근 저축은행의 수신 감소는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등으로 수신 증가가 불필요함에도 7~9월중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 자금으로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수신전략**에 주로 기인한 측면
- * '23.10월중에도 수신 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만기 집중에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으로 '23.9월말 예대율(88.1%)은 전년 동월(92.2%)에 비해 4.1%p 낮은 수준
- ⇒ 현재의 **가용유동성** 등을 감안시 **유동성부족 문제**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 ②'23.10월중 정기예금(1년) 금리*는 다소 상승(시장금리 상승폭 이내) 하였으나 전년 4분기 대비 100bp 이상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임

* 저축은행 : ('22.10월) 5.22%, (11월) 5.82%, (12월) 5.70% → ('23.10월) 4.31%
상호금융 : ('22.10월) 4.34%, (11월) 5.24%, (12월) 5.19% → ('23.10월) 3.97%

나. 추진계획

-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가동
- 은행 및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자동 전송 받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동(10월)하였으며,
 - 예수금 변동 확대 등 이상징후 감지 시 신속·적시 대응할 예정
- 은행·저축은행 등 유동성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컨틴전시 플랜 마련

■ 머니무브 관련 그간의 주요 감독 대응

- ①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발행 제한을 완화**
- ② 유동성 규제 완화(~'24.상반기)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유예,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
- ③ 중앙회 유동성 지원 등 컨틴전시 플랜 마련

참고 1

은행·저축은행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구축배경)** 최근 해외은행 위기 사태* 이후 금리 수준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예수금이 민감하게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 심화

* 美 SVB은행이 예금자의 대규모 비대면 예금인출(디지털 뱅크런)로 인해 48시간 내 파산

- 이 과정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예수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

* '22.4분기 자금시장 불안에 따라 금융회사/상품 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자금이 급격하게 변동

⇒ 금감원이 각 은행·저축은행 예수금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아 (은행·저축은행→협회→금감원)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회사와 구축 방향 및 데이터 종류·주기 등 세부 요건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개발하여 10월 중 정식 운영 既 개시(저축은행 10.16, 은행 10.31)

- **(시스템 개요)** 각 은행 및 저축은행별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자동 전송받아 상시 조회 및 모니터링이 가능

* 회사별·기간별 예수금 잔액 및 증감률, 정기예금 신규취급·중도해지액 등

- 예수금 변동이 사전 설정 임계치(전일比 3% 이상)를 상회하는 등 특이동향 발생시 담당자에게 실시간 경보 알림(카카오톡·메신저)

※ 시스템 입수 데이터는 한은 및 예보에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 예정



⇒ 동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및 저축은행의 유동성 상황 및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 예수금 변동성 확대 등 이상징후 감지 시 금융회사 유동성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적시 대응*할 예정

* 예수금 데이터를 공유하는 금융위·한은·예보 등 유관기관과 공조

※ **(참고)** 향후 상호금융 업권의 예수금 정보도 실시간 입수 예정('24년 1분기)

□ **(자본비율)**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비율은 '23년중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

① **저축은행**: 3분기까지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23.9말 BIS비율은 14.14%**로 전년말(13.15%) 대비 +0.99%p 상승하였으며, 규제비율(총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

* 금년중 3분기 연속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4분기 이후 조달비용 감소 등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으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분기별 순이익(억원) : ('23.1분기) △528 → (2분기) △423 → (3분기) △462

** <BIS비율 추이> '22.4Q 13.15% → '23.1Q 13.62% → 2Q 14.15% → 3Q 14.14%

② **상호금융**: '23.9말 순자본비율은 8.04%*로 규제비율(농협 5%, 신·수·산림 2%)을 크게 상회

* <전체 순자본비율 추이> '22.4Q 8.26% → '23.1Q 7.80% → 2Q 7.97% → 3Q 8.04%
<'23.3분기 업권별 순자본비율> 신탁 6.44%, 농협 8.70%, 수협 5.07%, 산림 10.32%

③ **여전사**: '23.9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 19.59%, 캐피탈사 17.55%*로 규제비율(카드사 8%, 캐피탈사 7%)을 크게 상회

* <조정자기자본비율 추이>

- 카 드 사: '22.4Q 19.40% → '23.1Q 19.64% → 2Q 19.96% → 3Q 19.59%

- 캐피탈사: '22.4Q 16.87% → '23.1Q 17.35% → 2Q 17.32% → 3Q 17.55%

나. 평가 및 전망

□ '23.3분기 중소서민권역 연체율은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경기가 저점을 보인 상반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

○ 또한,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하면 하반기 상승폭은 상반기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양호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이 현재까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 다만, 현재의 금리 수준 지속 및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 감안시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주요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지속 필요

다. 향후 감독방향

■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 이상징후 발견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

- 아울러, 연체율 추가 상승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고할 예정
-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재기지원 확대 유도

① **(연체채권 관리 강화)** 장기 연체채권은 신속하게 상각하고, 유동화 방식의 가계연체채권 정리*, PF정상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매각 적극 유도

* 캠프로 매각 제한중인 가계신용채권의 유동화 방식 정리 허용('23.5월, 금융위)

** 여전사·저축은행 업계 자율적으로 PF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23.9월~10월)

- 소상공인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1:1 면담을 실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및 공적 채무조정 등 맞춤형 채무조정 안내 등을 통해 재기 지원

② **(정밀 모니터링)** 개별 회사의 연체율 관리계획 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도 실시*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 예정('23.12월)

③ **(손실흡수능력 제고)** 추가 충당금 적립 유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다중채무자, 부동산·건설업 등 리스크가 높은 부문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

*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저축은행, '23.9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상호금융, 규정개정 예고)

- 또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등을 통해 리스크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유지 계획 징구 및 필요시 자본 확충 지도

* 저축은행의 경우 '22년이후 연 1회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의무화

1

부문별 연체율

가. 저축은행

□ '23.9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 대비 0.82%p 상승 [상승폭: 1분기 +1.66%p → 2분기 +0.26%p → 3분기 +0.82%p]

- 부문별로 기업대출(7.09%)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며, 가계대출(5.40%)은 연체율이 1분기 대비 하락하는 등 상승세 둔화

* 기업대출은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높은 수준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

(단위: %, %p, 조원)

구 분	'22.12말	'23.3말	'23.6말 (a)	'23.9말 ^p (b)	6말比 (b-a)	'23.9말 대출잔액 ^p	(비중)
가계대출	4.74	5.59	5.12	5.40	0.28	39.9	36.9
(가계신용)	5.14	6.14	5.65	6.01	0.36	28.0	25.9
기업대출	2.83	5.07	5.76	7.09	1.33	61.2	56.6
(개인사업자)	3.31	5.17	6.35	7.49	1.14	20.8	19.2
원화대출 계	3.41	5.07	5.33	6.15	0.82	108.1	100.0

나. 상호금융

□ '23.9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말(2.80%) 대비 소폭 상승 [상승폭: 1분기 +0.90%p → 2분기 +0.38%p → 3분기 +0.30%p]

-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양호한 수준*이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4.59%로 부동산 경기둔화 영향으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높은편(7.05%)

* 가계대출은 담보대출 위주의 지역 밀착 영업 관행으로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상호금융 연체율 추이

(단위: %, %p, 조원)

구 분	'22.12말	'23.3말	'23.6말 (a)	'23.9말 ^p (b)	6말比 (b-a)	'23.9말 대출잔액 ^p	(비중)
가계대출	0.91	1.25	1.43	1.56	+0.13	226.3	44.6
기업대출	2.23	3.69	4.21	4.59	+0.38	262.1	51.7
(개인사업자)	1.39	2.22	2.52	2.82	+0.30	152.7	30.1
(법 인 대 출)	3.38	5.71	6.52	7.05	+0.53	109.4	21.6
원화대출 계	1.52	2.42	2.80	3.10	+0.30	507.2	100.0

다. 여전사

- '23.9말 여전사 연체율은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로 전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

* <연체율 상승폭> (카드사) 1분기 +0.32%p → 2분기 +0.05%p → 3분기 +0.02%p
(캐피탈사) 1분기 +0.54%p → 2분기 △0.01%p → 3분기 +0.03%p

- 카드사는 신용판매 연체율(0.90%)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3.68%)도 양호한 수준
- 캐피탈사도 할부·리스 등 고유자산 연체율(0.67%)이 낮은 수준이며, 가계·기업대출 연체율도 양호한 수준(각각 3.36%, 2.42%)

여전사 연체율 추이

(단위 : %, %p, 조원)

구 분	구 분	'22.12말	'23.3말	'23.6말 (a)	'23.9말 ^p (b)	6말비 (b-a)	'23.9말 대출잔액 ^p	(비중)
카드사	카드채권	1.38	1.72	1.77	1.77	0.00	134.3	81.0
	(신용판매)	0.65	0.86	0.87	0.90	+0.03	92.3	55.7
	(카드대출)	2.98	3.54	3.67	3.68	+0.01	42.0	25.3
	총채권	1.21	1.53	1.58	1.60	+0.02	165.8	100.0
캐피탈사*	본업자산*	0.57	0.64	0.63	0.67	+0.04	80.0	41.5
	가계대출	2.91	3.46	3.56	3.36	△0.20	25.7	13.3
	기업대출	1.30	2.31	2.31	2.42	+0.11	84.3	43.7
	총채권	1.25	1.79	1.78	1.81	+0.03	192.7	100.0

* 할부·리스사 등

2 자본비율

- '23.9말 자본비율은 저축은행(BIS비율) 14.14%, 상호금융(순자본비율) 8.04%, 카드사·캐피탈사(조정자기자본비율) 각각 19.59%, 17.55%

중소서민 금융회사 자본비율

(단위 : %, %p, 조원)

구 분	자본비율 규제	'22.12말	'23.3말	'23.6말 (a)	'23.9말 (b)	전분기비 (b-a)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3.15	13.62	14.15	14.14	△0.01
상호금융	순자본비율	8.26	7.80	7.97	8.04	+0.07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	19.40	19.64	19.96	19.59	△0.37
캐피탈사		16.87	17.35	17.32	17.55	+0.23

3 최근 가계대출 · 금리 동향 및 관리방향

1.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안

가. 현 황

- 금융권 가계대출¹⁾은 4월 증가 전환 이후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다가 9월²⁾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1) 증감액(조원): ('23.4)+0.1 (5)+2.6 (6)+3.2 (7)+5.2 (8)+6.1 (9)+2.4 (10)+6.3 (11.1~27.^B)+2.3

2)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된 후 10월 다시 확대되었으나 전월 신용대출 감소 기저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 9~10월 수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

- 11월 들어서도 은행권 주담대는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

- 11.1~27일(19영업일) 잠정 집계결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2.3조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9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기타(신용)대출은 9월 이후 점차 증가

- 보험·상호금융·여전사는 감소세 지속, 저축은행은 소폭 증가

※ 다만, 11월 5주차 은행권 집단대출, 기타대출 증감에 따라 증가폭이 변동될 가능성

⇒ 11월 중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위주로 증가*

* 11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4.8조원) 중 +3.7조원이 정책성 대출(특례보증자리론·디딤돌·버팀목)이며, 은행 자체 주담대는 +1.1조원에 불과

가계대출 증감 추이(주금공 양도분 포함)

(단위:조원)	'23년중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1~27. ^B
全 금 융 권	+9.8	+0.1	+2.6	+3.2	+5.2	+6.1	+2.4	+6.3	+2.3
은행권 가계대출	+33.5	+2.3	+4.2	+5.8	+5.9	+6.9	+4.8	+6.8	+4.9
주 담 대	+45.6	+2.8	+4.2	+6.9	+5.9	+7.0	+6.1	+5.8	+4.8
기 타 대 출	△12.1	△0.5	△0.05	△1.2	△0.05	△0.1	△1.3	+1.0	+0.03
제2금융권 가계대출	△23.7	△2.2	△1.6	△2.6	△0.6	△0.8	△2.5	△0.5	△2.6

주) 은행권은 11월 1~27일, 제2금융권은 1~24일까지 속보치 반영

※ 언론에서 발표하는 5대 은행 주담대 통계는 은행 B/S 기준으로, 정책모기지 양도분까지 포함하여 집계하는 감독원 가계대출 통계와 증가폭·증감방향이 달라질수 있음
- 가계대출 증감추이는 5대 은행 주담대 외 저축은행 기타대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

나. 전 망

-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1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최근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특례보증자리론 일반형 중단(9.27.),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이 주담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 *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 [카카오] 주담대 무주택자로 제한(7월~) · [농협]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10월~)
 - [우리·신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2억원 한도 설정(11월~)
 - 연립·다세대주택 등 모기지신용보험(MCI)·보증(MCG) 대출 취급중단 등
- 특히,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주담대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주택거래량(천호): (6월)6.7 (7월)6.5 (8월)6.7 (9월)6.3 (10월)5.1 (11.1.~28일)2.5

다. 대응방안

-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금융위와 협의하여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
 - * 현재 세부방안 협의 중
- 아울러,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

* '23.8.26.~11.1. 기간 중 가계대출 취급은행 16곳(씨티·산은·수은·제주 제외) 대상 실시

참고 3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주요 문제점

- **(점검 개요)** 가계대출 취급 16개 은행(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23.8~10월중)
 -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

□ (주요 사례)

①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경 사항**임에도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 합의 등은 진행되었으나, 리스크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심사·리스크부서의 우려사항이 무시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사전 심사 미흡
 - 한편, 다수 은행에서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거나,
 - DSR 한도 확대를 영업 수단으로 사용토록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 ▶ (A은행) 리스크부서의 금리리스크 확대 및 듀레이션 관리 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서의 의견대로 만기 확대 추진
 - ▶ (B은행)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②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 설정

-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서민금융 제외)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업점의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 다수 은행에서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
- ▶ (C은행 등) 가계대출 취급과 비례하는 지표 포함, 업적평정으로 반영
 - ▶ (D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및 시장점유율 포함

③ 신용 및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시 적용만기 차이로 인하여 DSR 한도가 확대됨을 영업수단으로 사용
 - 신용대출은 DSR 산출 시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5~10년)가 적용되는 반면 주담대는 최장 40년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DSR 한도가 약 2.2배 증가하는 효과
- ▶ (E은행) 영업점에 “타행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함에 따른 DSR 개선 효과”를 안내하는 등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를 적극 이용

④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 신잔액COFIX 금리 도입('19.6월) 시 잔액COFIX 연동 상품을 신잔액COFIX 연동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잔액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 시 대출규제 완화 적용
 - 일부 은행은 신잔액COFIX 금리 도입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환 전 상품이 잔액상품이 아니더라도(예 : 신잔액, 은행채 등) 신잔액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DSR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 (F은행 등) 대환 후 상품이 신잔액COFIX인 경우, DSR 규제 미적용

⑤ 高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

- 특수·지방은행은 설립 취지¹⁾ 등을 감안하여, 高DSR 비중²⁾ 등에서 시중은행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 중
 - 1) 지역별 DTI 비율, 정책적 목적에 따라 高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 등 대상 비주담대 취급이 클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高DSR 대출 비중에서 특례 제공
 - 2)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규제로, 신규취급액 중 高DSR 대출(70%↑/90%↑)을 일정 비중 이하로 제한
- 高DSR 대출 비중(% , 70↑/90↑) : (시중) 5/3, (특수·지방) 15/10
- 일부 은행의 경우, 특례 취지와 다르게 우수고객 및 공무원 등 우량 가계 대출(1억원 이하) 취급 시 高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하는 등 특례 남용
- ▶ (G은행) 특수·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특례의 취지와 달리 우수고객·공무원 가계대출 취급 시 高DSR로 취급하도록 독려

2. 가계대출 금리 동향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23.1월 한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

*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 코픽스 금리 등을 기준으로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

- 7월까지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시장금리(은행채 1Y**)가 일부 등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데다,

* ('22.12월) 5.64% → ('23.1월) 5.47% → (3월) 4.96% → (7월) 4.80%

** ('22.12월) 4.51% → ('23.1월) 3.93% → (3월) 3.72% → (7월) 3.87%

- 은행간(인터넷은행 등) 영업경쟁 심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확대*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4월) +0.2조원 → (5월) 1.9조원 → (6월) +3.0조원 → (7월) +3.0조원

- ⇒ 은행권의 자발적인 취약차주 지원 노력이 대출금리 하향 안정화의 주된 요인으로 보기는 곤란

- 11월 들어 주담대 금리*는 美 기준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은행채 5Y**) 변동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보합세

* ('23.10월) 4.56% → ('23.11.3주) 4.49%p ** ('23.10월) 4.71% → ('23.11.3주) 4.37%

은행권 대출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p)

구분	'22.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계대출금리	5.64	5.47	5.22	4.96	4.82	4.83	4.81	4.80	4.83	4.90	5.04
시장금리(은행채1Y)	4.51	3.93	3.71	3.72	3.55	3.73	3.86	3.87	3.87	3.99	4.11
신규 COFIX금리	4.29	3.82	3.53	3.56	3.44	3.56	3.70	3.69	3.66	3.82	3.97

가계대출금리·은행채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	------	------	------	------	------	------	------	------	------	------	------

참고 4

상품간 · 신용등급간 대출금리 역전 논란에 대한 확인 결과

- **(상품별)** 가계대출 관리 등을 위해 은행권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함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
 - 은행 홈페이지 공시 상품별 대출금리 하단은 우대금리를 최대치로 적용한 금리(극단치)로서 대출금리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 '23.10월중 실제 취급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6.81%)의 경우 주담대(4.56%) 대비 2.6%p 높은 수준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하단 현황 (11.16./ 4대 은행 기준)

(단위 : %)

구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하단*	상단*	우대금리	실제 취급금리 (10월중)	하단*	상단*	우대금리	실제 취급금리 (10월중)
A은행	4.73	6.13	1.40	4.61	5.53	6.43	0.90	5.30
B은행	4.78	6.08	1.30	4.53	5.31	6.51	1.20	5.87
C은행	5.29	5.69	0.40	4.55	5.20	6.70	1.50	5.79
D은행	5.62	6.02	0.40	4.61	5.36	5.96	0.60	5.17

* 주택담보대출(신규COFIX 6개월),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대표상품 1개 기준
(하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상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용등급별)** 은행권 신용대출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하였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
 - 평균 금리 수준의 경우 여전히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으나, 최저 등급 대출금리만 전년대비 하락*(여타 등급은 상승)
 - * ①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금액기준 4.11%)이 낮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②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저신용자 상품(새희망홀씨 등) 금리를 인하한 데 주로 기인
- ⇒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신용위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금리왜곡 현상으로는 보기 힘든 측면

[참고] 은행권 신용점수 구간별 가계 신용대출 금리 (신규 취급 기준)

(단위: %)

구분	1000~ 951점	950~ 901점	900~ 851점	850~ 801점	800~ 751점	750~ 701점	700~ 651점	650~ 601점	600점~
'23.9월(A)	5.36	5.70	6.23	6.77	7.37	7.88	8.46	9.03	9.27
'22.9월(B)	5.28	5.57	6.03	6.50	7.10	7.81	8.22	8.71	9.74
증감(A-B)	+0.08	+0.13	+0.19	+0.27	+0.28	+0.07	+0.24	+0.32	△0.47

4 최근 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가. 현 황

- '23.9월말 현재 전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843.3조원으로 '22년말 (1,759.7조원) 대비 4.8% (83.6조원) 증가
 - **(차주별)** 대기업 대출(313.5조원)은 '22년말 대비 10.4%(29.4조원)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886.1조원) 및 개인사업자 대출(643.7조원)은 각각 4.0%(34.3조원), 3.2%(19.9조원) 증가
 - **(업권별)** 은행권 기업대출(1,291.8조원)이 '22년말 대비 5.7%(70.2조원) 증가하고, 제2금융권 기업대출(551.5조원)은 2.5%(13.5조원) 증가
 -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0.6%, 7.1%)이 '20~'22년 수준(연평균 20.5%, 24.7%)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율을 하회

나. 주요 증가 요인

①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부진

- 고금리 등에 따른 회사채 투자수요 축소 및 주식발행 부진 등으로 금융권 대출로 대체수요 발생

* 자본시장 純조달액(조원, 한은): ('20) 27.2 → ('21) 43.2 → ('22) 39.4 → ('23.1~10월) 12.9

② 영업실적 하락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증가

- 기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족한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수요 및 경기악화에 대비한 先자금 확보수요 증가

* 상장기업(KOSPI) 영업이익률(거래소, 개별): ('22.1~9월) 6.5% → ('23.1~9월) 2.5%, 4.0%p ↓

③ 2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투자수요

- 배터리 업체 등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집행되며 대출증가

다. 평가 및 대응

■ 대기업 중심의 은행대출 증가,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 등 감안시 기업대출 증가세는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 한정된 금융자원이 보다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기초로 여신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계획

* 저금리 기간 중 누적된 한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영업지속가능성을 객관적 근거로 평가

① **(대기업·은행권 중심 증가)** 금년중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낮은 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 대기업 대출이 전년말 대비 10.4%(은행권 13.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기업의 신규차입 부담으로 증가율 축소(전금융권 '22년 연간 11.9%→'23.1~9월중 4.0%)

- 최근 3년('20~'22년)과 비교하여 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은행권 증가율이 제2금융권 증가율보다 높음*

* 전금융권 ('19) 8.0% → ('20) 14.4% → ('21) 12.2% → ('22) 12.2% → ('23.1~9) 4.8%
은행권 ('19) 5.7% → ('20) 12.6% → ('21) 9.1% → ('22) 9.7% → ('23.1~9) 5.7%
제2금융권 ('19) 15.1% → ('20) 19.8% → ('21) 20.6% → ('22) 18.3% → ('23.1~9) 2.5%

② **(리스크관리 강화)** 기업대출 연체율이 '22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이나, 아직 과거와 비교시 낮은 수준*

* 기업대출 연체율(은행, %): ('13~'17 평균) 0.71 ('19) 0.45 ('21) 0.26 ('23.9) 0.42

- 금융권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매각하는 등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적립률(은행 기업여신, %): ('19) 112 ('20) 136 ('21) 163 ('22) 230 ('23.9) 222